

##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직업체험 실시

- 대전지역 보육시설 어린이 26명 초청, 지역사회 사랑나눔 행사 개최
- 키자니아 방문객 대상 체험형 홍보부스 운영 ... 마약·위조상품 밀수 위험성 알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화) ‘키자니아\* 서울’에 대전 보육 시설 어린이 26명을 초청해 직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들이 세관공무원, 공익변리사, 소방관, 승무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관세청은 2012년부터 ‘키자니아 서울’에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돌아보며 세관공무원, 항공기 승무원, 소방관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 체험 부스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직업 체험 행사와 연계하여 키자니아 방문객 대상 ‘마약·위조상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 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 △진짜를 찾아라 게임(위조상품 중 정품을 골라내는 게임), △125 빙고 게임(과녁판에서 밀수 신고 번호에 해당하는 1, 2, 5를 공으로 맞추는 게임) 등

이번 행사를 함께한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정구천 (042-481-7615)
		담당자	사무관	김우선 (042-481-7624)